

「저출산고령화에 대한 EWC-KIHASA 두 번째 공동세미나 (베이비 버스트의 사회경제적 영향)」 내용

<<일정 및 프로그램>>

- ☐ 2011. 6. 1-2 양일간 개최
- ☐ 프로그램: 총 5회의 세션에 걸쳐 진행됨

<<Session 1>>

- ☐ The Socioeconomic Impact of the Baby Bust: Sam-Sik Lee
 - 한국 베이비 버스트로 인한 인구학적 변화와 그로 인한 사회경제적 영향을 노동시장(노동력), 내수 시장과 고용, 경제성장, 연금, 건강보험, 국가 재정, 교육(학생수 및 교원, 학교 공급 초과) 등의 측면에서 살펴보고, 다양한 측면에서의 정책적 대응이 필요함을 역설하였음
- ☐ The rise of temporary migration of rural married women and its effect on non-farm employment for all temporary migrant rural women in China, 1990-2005: Jiajian Chen
 - 최근 농촌 기혼 여성이 도시로 비농업 일에 종사하기 위해 점점 더 많이 이주해 왔으며, 농촌 기혼 여성의 이주가 1990~2005년 사이 모든 농촌 임시 이주 여성의 비농업 고용률 전반적인 증가의 47%를 차지함.
 - 이는 새로운 중국에서의 여성 지위의 향상에 새로운 신호가 되며, 농촌 기혼 여성의 임시 이주는 종종 자녀를 남겨두고 떠나기 때문에 가족 해체에 따른 심리적이고 사회적인 비용을 낳게 되므로 이들을 위한 공적인 지원을 제공해주어야 함

<<Session 2>>

- ☐ Aging and Inequality: Income and Expenditure: So Chung Lee
 - 한국 노인(65~74세)의 소득과 소비불평등 구조 변화를 살펴본 결과, 지난 10년간 소득분배 상태가 다소 개선되었는데 이는 이전소득(공적, 사적)의 분배 상태 개선에서 기인하므로 향후 노후 소득의 불평등 상태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국민연금제도 및 기초노령연금제도를 비롯한 공적 노후소득보장 제도의 실질적 확충 및 안정화가 매우 중요

- 소비불평등도 약간 개선되었지만 건강이나 여가, 피복 및 신발, 가구집기사용품과 같은 항목은 여전히 불평등하게 소비되고 있었으며, 이런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한 노력 필요

□ Will population change be good or bad for the world's economies?: Andrew Mason

- 인구고령화로 인하여 세계경제는 소비 감소, 노동자의 노동년수 연장, 인적자본투자 증가, 저축 증가 등의 4가지 반응이 나타날 것이라고 예상

<<Session 3>>

□ Aging Baby Boomers and Welfare Financing: Yunkyung Lee

- 고령화의 진전으로 인해 향후 건강보험과 장기요양보험 등에서의 비용 발생이 급격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 건강보험과 장기요양보험의 재정 증가 예측 시나리오는 여러변수에 의해 영향을 받고 있으며, 이 중에서는 정책적 노력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는 영역이 있다고 판단.
 - 최대한 향후 긍정적 시나리오(예산 증가분을 줄일수 있는)가 적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건강정책의 예방정책 강화, 건강수명 증가, 연명치료의 감소 등의 정책 도입을 필요로 함.

□ The Baby Bust and Consumption Trends: Eun-Jung Kim

- 인구구조의 변화는 가구유형의 변화를 동반하며 이는 소비구조 변화를 초래함
 - 평균수명의 증가는 개인의 생애자원 배분의 변화를 초래함
 - 저출산 고령화로 인하여 평균가구원수가 감소하며 1인 가구가 증가함. 노인 1인 가구의 경우 의료비 지출비중이 상당히 늘어나고 있음
 - 저출산으로 학령기 인구분포가 감소함에도 불구하고 1인당 교육에 대한 지출비용은 증가추세에 있음

<<Session 4>>

□ Late Birth and Its Implications in South Korea: Hosik Min

- 늦은 출산에 관한 선행연구, 쟁점 등에 대한 분석을 통해 추후 연구를 위한 연구질문 제시

□ Explaining Trends in Coresidence of Newly Married Couples with Parents in Japan: Robert Retherford

- 일본의 결혼하면서 부모와 함께 사는 커플이 오랜 기간 동안 줄어든 이유를 설명하기 위해 1960~64년 코호트부터 5년 단위로 2000~04년 코호트까지 각각 로지스틱 회귀분석으로 분석하였으며, 1998년부터 약 2003년까지는 이러한 커플이 증가했는데, 그에 대한 설명 제시

<<Session 5>>

□ Gender Inequality in Labor Market and Fertility: Jongseo Park

- 지역 노동시장의 구조적 맥락이 반영된 기회구조가 여성의 출산수준과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지역 단위 남녀임금격차 및 성별직종분리 정도와 출산 수준의 관계가 어떠한지를 보는 것이 목적임.
- 분석결과 남녀 임금격차가 큰 지역의 출산수준이 높고, 남녀 임금격차가 작은 지역에서 출산수준이 낮았으며, 이는 노동시장 제도가 일가족양립에 불리하게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출산 수준이 낮게 나타난 것으로 해석됨. 기회구조가 직종별로 폐쇄적인 지역에서 저임금과 고용이 불안한 직종에 여성이 집중되면서 결혼과 임신 출산에 대한 기대를 좌절당하고 출산 수준의 저하로 이어짐.

□ Potential Institutional Accommodations in the Face of Low Fertility: Ronald Rindfuss

- 제도나 정책이 출산력을 끌어올릴 수 있을지에 대해 유럽이나 북아메리카, 동아시아, 호주와 뉴질랜드로부터의 제도나 정책(의도적인 정책, 의도하지 않은 정책)에 대해 논쟁점 제시